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해남사랑기부제 동참

[윤성수]

임직원 50여 명 자발적 참여...해남군에 500만원 전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 발전 위한 상생 행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30일 해남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열고 해남군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농어촌공사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30일 해남군청에서 해남사랑기부제 기탁식을 갖고 해남군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에는 정경훈 지사장을 비롯한 해남·완도지사 임직원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뜻을 모았다.

정경훈 지사장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ADVERTISEMENT

이어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발맞추며, 다 함께 잘 사는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상생의 가치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Tag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